

사설

## 위대한 전승의 역사를 민족자주위업의 최후 승리로 빛내여나가자

주체조선, 영웅적인민의 존엄과 기상을 온 세상에 높이 떨친 승리의 7. 27이 다가오고있다.

뜻깊은 전승절을 맞으며 우리 겨레는 조국해방전쟁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시어 공화국의 승리의 새 역사를 펼쳐주시길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기고있다.

지난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은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연합세력의 침략으로부터 나라의 자유독립과 전취물을 수호하고 인민의 운명과 세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정의의 전쟁이었으며 인류전쟁사상 그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엄혹하고 가렬한 전쟁이었다.

침략과 전쟁의 원흉인 미국은 조선반도를 발판으로 하여 아시아와 세계를 제패할 야망밑에 조선전쟁을 도발하고 저들의 거수기에 불과했던 유엔의 간판을 도용하여 추종국가군대들까지 끌어 들였으며 원자탄공갈을 비롯한 가장 야만적인 전쟁방법과 수단을 다 적용하였다.

그러나 3년간의 가렬치절한 전쟁에서 승리한것은 동방에 새로 일떠선 인민공화국이었고 수치스러운 패배의 구렁텅이에 처박힌것은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국이었다. 전쟁기간 공화국은 미제침략군 40만 5 498명을 포함한 156만 7 128명의 적을 살상포로하고 1만 2 224대의 비행기와 564척의 각종 함선, 3 255대의 탱크 및 장갑차, 1만 3 350여대의 자동차, 7 695문의 각종 포를 비롯한 막대한 량의 전투기술품들과 군수물자들을 로획과파하였다. 이를 두고 미국의 사가들도 《기절할 정도로 값비싼것》이었다고 저들의 참담한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청소한 공화국이 미국을 멸망의 내리막길에 처박고 영웅조선의 기상을 온 세상에 떨칠수 있는것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이 계시고 그이의 탁월한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다.

북침전쟁의 불구름이 라레쳐온 그날 미국놈들이 조선사람을 알기를 우습게 안다고, 승냥이는 몽둥이로 다스려야 한다는 말과 같이 조선사람을 몰라보고 덤비는 놈들에게 조선사람의 본래를 보여주어야 한다시던 수령님의 호탕하신 웃음, 전쟁의 포연탄 우속에서도 화선의 용사들을 대학으로 부르시고 폐허우에서 복구건설의 휘황한 태양을 설계하도록 하신 수령님의 그 태연자약하고 자신만만한 승리의 신심과 배짱은 전쟁전기간 싸우는 군대와 인민에게 크나큰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천재적인 군사적예지와 탁월한 령군술로 최고사령부작전대우에서 승리의 화살표를 련속 그어주시였으며 적들의 군사기술적우세를 정치사상적, 전략기술적우세로 타도승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대전에서 창조된 현대포위전의 모범, 적들의 파도식공격을 물거품으로 만든 갯도전법과 비

행기사냥군조운동, 탱크사냥군조운동, 저격수조활동, 습격조활동, 독립증기조활동, 직후과피조활동, 습격조활동, 이동포병중대활동, 기동고사포병중대활동, 직사포조활동 등 위대한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내놓으신 군사전법들은 아메리카제국을 패전의 함정에 몰아넣고 조국해방전쟁의 승리의 날을 앞당겨오게 하였다.

한몸의 위험도 무릅쓰시고 불비 쏟아지는 최전선에까지 나가시어 몸소 작전적명안들을 밝혀주시고 언제나 싸우는 전사들과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승리의 신심과 무적의 용맹을 안겨주시길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령도와 친아버이사랑은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면서 세계적인 군사적기적을 남게 한 근본원천이었다.

조국해방전쟁은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군대와 인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굳게 단결하여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여 침략자들을 타당한 정신력의 승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시길 해방된 나라에서 땅과 공장의 주인이 되어 곁같은 행복을 누려온 공화국의 인민에게 있어서 조국은 곧 아버지수령님이시였으며 수령님께서 계시어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은 전화의 불길속에서 군대와 인민이 높이 발휘한 정신력의 근본핵이었다.

영웅한 인민군전사들은 1211고지, 351고지, 락동강과 월미도를 비롯한 격전장마다에서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고 어귀가 되어 침략자들에게 무리죽음을 안기였으며 후방인민들도 준엄한 전화의 나날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전시생산과 전선원호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웠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1953년 7월 27일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을 빛나게 계속하고 전승의 축포를 궁지높이 쏘아 올렸다.



조국해방전쟁에서 력사적인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미제침략자들을 타당한 영웅적군대, 영웅적인민으로 온 세상에 자랑떨치게 되었다.

전국이래 110여차례의 침략전쟁에서 단 한번도 패한적이 없었던 미국이 령도와 인구, 경제력과 군사력에서 대비조차 되지 않은 청소한 공화국에 패함으로 하여 세계의 면전에서 당한 수치는 인류전쟁사상 가장 비참한것으로 되었으며 미국의 운명을 뒤흔튼 결정적인 타격으로 되었다.

미국이 수백수천억US\$를 퍼부으며 가장 야만적인 전쟁을 감행하였지만 얻은것은 시체와 죽음이었고 《강대성》의 신화가 깨어져나가고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비참한 운명뿐이었다.

참으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끄시어 미제의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놓으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은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포성이 멎은 때로부터 지난 60여년간은 미국의 변함없는 침략과 적대시이며 강권과 전횡이 판을 치는 국제정치질서에 파열구를 내시고 세계평화와 안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것은 조국해방전쟁의 승리와 더불어 반제반미투쟁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져있다.

영광스러운 김정일시대에 공화국은 인민의 운명과 세계의 평화를 굳건히 수호해나가는 천하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솟아올랐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천재적인 예지와 드물지 않는 자주적신념, 무비의 담력을 지니시고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과 《EC—121》대형간첩비행기 사건, 판문점사건을 비롯한 미국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결음마다 짓부셔버리시였다.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된것을 기회로 극도에 달하였던 미제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은 말그대로 총포성없는 전쟁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정치를 전면적으로 펼치시고 조미핵대결과 조국수호전을 현명하게 이끄시어 강권과 전횡이 판을 치는 국제정치질서에 파열구를 내시고 세계평화와 안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것은 조국해방전쟁의 승리와 더불어 반제반미투쟁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져있다.

영광스러운 김정일시대에 공화국은 인민의 운명과 세계의 평화를 굳건히 수호해나가는 천하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솟아올랐다.

위대한 수령님탄생 100돐을 경축하여 성대히 진행된 열병식은 군사기술적우세가 더는 제국주의자들의 독점물이 아니며 미국이 조선을 핵무기로 위협공갈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는것을 보여준 승리자의 대축전이었다.

오늘 우리 민족의 세기를 이어오는 반미대결전의 진두에는 또 한분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서계신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한생이 어린 총대를 틀어쥐고 미제의 대

조선적대시정책과 침략책동을 영원히 끝장내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선군령도로 인민군대를 최정예의 무적강군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시고 군민대단결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올려세우시어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위협천만한 최대열점지역들에까지 서슴없이 나가시어 작전기술적명안들을 밝혀주시고 군인들에게 일당백의 슬기와 용맹을 안겨주시며 적들의 침략기도를 련속 제압분쇄하심으로써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군력과 필승의 기상을 만천하에 떨치고계신다.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백두의 공격기질과 뛰어난 령군술, 강철의 담력과 드센 배짱을 지니신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나아갈 때 영원히 백전백승한다는 억척불변의 신념을 안고 멸적

의 투지와 기상을 남김없이 파시하고있다.

온 세계가 우러르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들을 높이 모시어 반제반미대결전에서 언제나 승리하여왔으며 앞으로도 승리는 영원하다는것이 승리의 7. 27에 이 땅의 군대와 인민이 다시금 새겨보는 진리이다.

승리자의 궁지가 넘쳐나는 뜻깊은 7. 27을 맞으며 온 겨레는 반제반미투쟁사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고있으며 선군승리의 새로운 장을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있다.

위대한 전승의 전통을 이어 민족자주위업의 최후승리,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는것은 북과 남, 해외 온 겨레의 숭고한 의무이며 한시도 미룰수 없는 민족지상의 과업이다.

백두의 천출명장을 대를 이어

높이 모실 때 우리 민족의 영원한 승리가 있다는 진리는 어제와 오늘도 변함없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불세출의 위인들을 모신 끝없는 민족적궁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민족의 영원한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우러러 모셔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상과 령도, 풍모를 그대로 체현하시고 민족자주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가는 가장 걸출한 령장이시고 회세의 정치가이시다. 온 겨레는 그 어떤 퇴성벽력에도 끄떡하지 않으시고 적들의 도발에는 즉시적인 대응타격으로,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조국통일대전으로 맞받아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정의와 애국의 한길로 역세게 걸어나가야 한다.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적대시정책과 전쟁책동을 저지파란시키고 민족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고 조선반도를 타고앉으려는 미국의 침략적본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은 조선반도와 주변에 핵전쟁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여 북침핵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고있으며 이로 하여 사소한 우발적인 군사적충돌도 전면전쟁으로 번져질수 있는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만일 이 땅에서 전쟁이 다시 터진다면 그것은 지난 조선전쟁에 대비할수 없는 엄청난 핵재난을 초래하게 될것이다.

전체 조선민족은 이 땅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지키는 보검인 공화국의 선군정치를 적극 지지하며 내외호전세력들의 대결과 전쟁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려야 한다.

북남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의 통일과 평화번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나라의 통일을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이룩하려는것은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립장이다. 올해에 들어와서도 공화국은 중대제안과 공개서한을 통하여 그리고 최근 특별제안과 정부성명을 통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나라의 통일과 평화번영을 위한 변함없는 립장을 천명하고 그에 남조선당국이 적극 호응해나설것을 호소하였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참다운 애국애족의 기치,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굳게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섬으로써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야 한다.

민족이 가는 통일의 앞길에 의연 힘난한 장애들이 가로놓여있지만 천출위인이 계시고 북남공동선언과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이 있으며 자주통일의 힘있는 력량이 있어 조국통일위업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다.

위대한 승리의 7. 27은 민족자주위업의 자랑찬 승리의 력사와 더불어 영원히 빛을 뿌릴것이다.